



진보당 광주출마자 지지호소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와 6·1 지방선거 광주 출마자 전원은 25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호소했다. /진보당 광주시당 제공

민주당 '텃밭' 광주서 제2당 경쟁 치열

국힘, 지지율 2당 부상 "시의회비례·구의원 3명 배출" 정의 "부족했습니다" 3000배 사죄·참회 모드로 진보 "광주원내교섭단체 만들어 달라" 철야유세 돌입

더불어민주당 심장부 광주에서 제2당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경쟁이 치열하다.

대선 승리 이후 광주에서 제2당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진보당이 막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는 민주노동당 윤남실(2002), 민주노동당 전주연(2010), 통합진보당 이미옥(2014), 정의당 장연주(2018) 진보계열 후보가 차례로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2006년에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후보자를 따로 내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6·1 지방선거 양상은 다르다.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광주MBC, 광주CBS 등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광주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지방의원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 66.0%, 국민의힘 9.4%, 정의당 6.6%, 진보당 3.6%, 국민의당 0.8%로 나타났다.

통상 3석인 광주시의회 비례의석 중 2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다는 전례를 봤을 때 나머지 1석을 두고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사상 최고의 대선 후보 득표율(12.7%)과 상승하고 있는 당 지지율을 기반으로 27년 만에 제2당으로서 시의회 진출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현장 시장위원장은 최

근 선대위 대책회의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와 청년 기초의원 3명을 당선시킬 목표로 뛰겠다"면서 "정당 득표를 향상을 통해 당선자 배출을 목표로 당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근 제2당으로 비례 시의원을 배출했던 진보계열 정당에 비상이 걸렸다.

정의당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이날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부족했습니다. 정의당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현수막을 들고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그동안 정의당은 광주 정치의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 정의당이 부족한 탓입니다"라며 "그렇지만 저와 정의당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을 바로 세우고 광주에서부터 정의당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의원과 정의당 광주 지방선거 출마자 전원은 사죄와 참회의 의미

로 광주 시민들에게 108배를 올렸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3000배를 이어갈 예정이다.

진보당도 김재연 상임대표와 광주출마자 전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8시간 철야유세에 돌입했다. 후보들은 선거운동기간 마지막 날까지 골목 골목 유권자분들을 찾아뵙고 진보당에게 일할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김주업 광주시장 후보는 "진보당의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보아주시고 화답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면서 "광주의 제1야당으로 광주시 원내 교섭단체로 진보당을 만들어 주시면 그 마음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주민들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산업부산물 실증센터 구축	2면
민주당 내분·공개 폭발	3면
사망자 역대 최대	4면

광주시교육감 단일화 무산...결국 5파전 정 후보 거부에 강 후보도 "원주" 밝혀

광주시교육감 일부 후보 간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무산되면서 결국 5파전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지난 23일 강동완 후보 제안으로 박해자, 정성홍 '3인 단일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정 후보가 이틀만인 25일 "작금의 단일화 제안은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변하는 것"이라며 단일화를 거부했다.

이에 강 후보도 "원주하겠다"며 수면 위로 급부상했던 단일화가 무산됐다.

정 후보는 25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단일화 제안은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교육의 가치와 철학, 정책에 대한 어떠한 공유와 제안도 없이 부도덕한 교육감, 보수교육감 탄생을 막아야 하기에 단일화를 하자는 것은 선거 공학에 불과하다. 교육감 선거는 일반 선거와 달라야 한다"며 강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거부했다.

이어 "나를 민주교육감 단일후보로 내세워 준 시민사회단체와 나는



보수로 회귀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이 광주에서 강행되는 현실을 광주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광주 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의 단일 후보로 추대됐다.

지난 23일 강 후보는 "5명의 후보가 출마할 경우 투표 분산으로 시민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박·정 후보에게 단일화를 긴급 제안했다.

강 후보의 제안에 박 후보는 "광주교육의 자랑스런 전진을 위해 함께 단일화대열에 나서자"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일화를 제안했던 강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도기 기자

5월 광주·전남 기업 체감경기 소폭 개선

한국은행 광주전남 기업 경기 조사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5월 중 광주·전남지역 기업의 체감경기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내놓은 '5월 광주·전남지역 기업 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BSI(Business Survey Index)가 각각 78, 81로 전월에 비해 각각 2포인트, 6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소재 585개(응답업체 제조업:240개, 비제조업:26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수가 기준치(100)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이하인 경우에는 적음을 나타낸다.

제조업 업황BSI는 지난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는 81로 전월과 동일했다.

제조업 매출 BSI는 100으로 전월에 비해 4포인트 상승했으며 6월 매출전망BSI도 101로 2포인트 높아졌다.

신규수주BSI는 95로 전월에 비해 6포인트 올랐고 다음달 신규수주전망BSI도 96으로 7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42.1%),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6.1%), 불확실한 경제상황(9.9%), 환율·정부규제·계절적 요인 등 기타(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의 다음달 업황전망BSI는 82로 전월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매출BSI는 90으로 전월 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

/권현안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안내

• 투표소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사전투표소 변경 | 서울역 >>> 남영동 주민센터 | 용산역 >>> 한강로동 주민센터

관내선거인

자신의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

관외선거인

관내선거인이 아닌 사람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7장

교육감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시·도 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 (지역구)	시·도 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선거 (비례대표)
-------	----------	------------	----------------	------------------	-----------------	-------------------

세종시(4장) 교육감, 시장,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제주도(5장) 교육감, 도지사, 교육의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 추가 구분(7개 선거구)
 ※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니 후보자 이름 확인

유효표와 무효표 예시

유효표	무효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가 일부만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 다른 후보자 (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의 O표를 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다듬어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사전투표 순서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입력)
- 투표용지 7장(세종 4장, 제주 5장)과 회송용봉투 받음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합
- 회송용봉투를 관외사전투표함에 넣음

관외선거인 순서

- 본인확인 및 투표용지 수령
- 투표함
- 투표정명기록서
- 투표함

- 투표 시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 ※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